인터뷰 — 檢·警 수사권 관련 형소법 개정안 발의한 이인기 의원

警察 搜査 開始權의 明文化

檢·警 상호협력 관계 明示

최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경찰의 현실을 잘 알고, 왜 경찰에게 수사권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법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를 의원회관에서 만나 보았다.

▲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

- 지난 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수사구조에 대한 공개토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2차대전 종료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소추를, 법원은 재판을 하는 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미법계는 당연히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소추를 하는 분권형태로 되어 있고, 대륙법계도 프랑스와 독일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와 계승을 해 왔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의 주체에 관해서는 論爭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제 어떤 제도가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해 주고, 국민 불편을 덜어 주는가를 생각해 볼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196조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검사와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 제 195조를 경찰도 검사와 함께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을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

-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입법국회는 어떤 법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의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 하겠죠 !

지난 6월 15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현재 40여명의 의원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당에서도 지난 6월 24일 개정안을 발의해 87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니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이인기 의원

▲ 법개정이 이뤄졌을 경우 기대효과는 ?

- 국민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으면 인적, 물적 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타살혐의가 없는 변사자의 경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다보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절차가 시정되는 겁니다.

또한 수사 서비스를 향한 檢·警의 경쟁이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오는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 이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사기가 앙양됩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 또한 국가적 낭비가 됩니다. 법 개정이 될 경우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檢·警 상호 보완관계, 혹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50여년전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주체를 인정해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의 자질이 50여년전의 일본경찰의 자질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이인기 의원은?

이 의원은 경찰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관의 사기를 올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국가배상 청구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안』을 오는 7월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호신용 조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개량형 조끼를 금년도 하반기 개인보급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원한 경찰인이었다.

경찰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 온 警察人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처리

그간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배상법의 적용대상에서 차별을 받아 온 것을 감안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외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한 피해와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6월 23일 제 25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투, 훈련 외의 일반 직무로 인한 순직, 공상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안』 7월중 국회 제출키로

지난해 8월 이학만에 의한 경찰관 피살사건을 계기로 순직경찰관에 대한 열악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 의원은 순직경찰관 유족보상을 '군인 수준으로 인상'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심의 과정에서 경찰 限定 보상법안에 대해 他 위험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①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입은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자에게 적용하며,

②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은 경찰공무원은 총경 10호봉,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10호봉, 기타 공무원은 4급 상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과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순직한 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그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때 에는 그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량형 호신용 조끼 하반기 개인 보급

현재 일선현장에서 착용하는 호신용 조끼는 착용시 너무 무겁고(2.3Kg) 두꺼워 행동이 불편하며, 개인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관리소홀해 지기 쉽고(개인별 휴대기피), 위에서 착용하는 구명 조끼형이라 긴급상황시 착용불편 및 진곤색에 경찰마크 부착으로 외근활동시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최근 5년간 범인피격에 의한 순직 8명, 공상 740명)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방탄재질의 원단을 사용하여 방검 성능이 우수하고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형사외근용 1.3kg/지구대순찰용 0.97kg) 개량형 호신용조끼를 올 하반기(7~8월)에는 보급하게 되었다.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

「서울대 깃발사건」, 「민청련 사건」 우선 조사

— 억울한 피해자 量産해선 안돼 —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최근 경찰청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원회의 각종 활동 소개, 진상규명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처리하는 한편 대상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과 관계인에 대한 증언 청취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추진경과

경찰청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발족된 이래 금년 3월 21일 조사팀의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위원회 운영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포괄적 조사대상 3대 분야 및 조사 우선 순위을 확정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해 10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지난 6월 3일에는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조사활동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 사진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위 출범 장면.

포괄적 조사대상 3대 분야 및 10대 조사대상 사건 우선 순위

과거사 진상위는 '용공조작·고문의혹' '불법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등 3대 분야를 포괄적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10대 조사대상 사건 이외의 해당 사건도 진상규명 작업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10대 조사대상 사건의 우선순위를 서울대 깃발사건, 민청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자주대오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46년 10월 대구 민간인 사살 의혹 사건,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나주부대 사건, 진보의련 사건 등의 순으로 정해 전체 10개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진행하되 가장 우선순위로 잡혀있는 서울대 깃발사건과 민청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7월부터 관련자의 면담 및 자료수집 등 구체적 조사활동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에는 동위원회가 지난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진압 방침에 반대하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구금, 고문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병사한 안병하 前 전남도경국장 관련 사건을 민원조사 대상사건으로 채택키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료나 증언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조사해야

한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 10명과 경찰위원 5명으로 구성했고, 조사관도 민간조사관 8명과 경찰조사관 8명으로 구성하긴 했지만, 사건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시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 행위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고가는 것을 지양하고, 억울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당수의 警友들은 『이번 경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이 개인의 허물을 잡기 보다는 과거 경찰의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 보고, 이를 시정해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교훈을 찾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조사대상 10대 사건

- ▲ 서울대 깃발사건 : 84.10.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문용식 등 29명 사법처리
- ▲ 민청련 사건 : 지난 85년 6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김근태 등 20명 사법처리
-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분신자살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사법처리
- ▲ 자주대오 사건 : 친북활동 배후조종 등 혐의로 10여년 동안 28개 대학에서 총 287명 사법처리
- ▲ 민청학련 사건 : 74년 4월 공산혁명 기도 등 혐의로 180명 사법처리
- ▲ 남민전 사건 : 지난 79년 10월 4일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이재문 등 78명 사법처리
- ▲ 대구 민간인 사살 의혹사건 : 지난 46년 10월 대구, 구미 폭동사건 진압과정에서 발포하여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의혹 제기
- ▲ 보도연맹원 학살의혹사건 :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후퇴과정에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 총살 등 즉결처분을 단행했다는 의혹 제기
- ▲ 나주부대 사건 :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위 나주부대가 후퇴시 인민군으로 위장해 인민군을 환영하는 민간인 100여명을 학살했다는 의혹제기
- ▲ 진보의련 사건 :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8명 사법처리

탐 방

警友會 지정병원으로 위촉된 양유식 치과의원

警友들에게 最小 20% 할인 혜택 주겠다

임플란트 시술 등 最新 장비와 노하우로 무장

『저희 치과를 찾는 警友들에게 방사선 촬영 및 검사,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보철, 틀니, 임플란트 등 高費用을 요구하는 시술을 할 경우에도 최소 20%의 할인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우회 지정병원으로 위촉된 「양유식 치과」의 양유식 원장이 『현직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警友회원들의 치료비 할인은 물론 치아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우회 중앙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안전공단 신관 4층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아들과 함께 父子가 운영하고 있는「양유식 치과」는 중·장년층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서 치아 이식 센터(임플란트), 보철, 보존, 치주 등 치과 영역 각 분야의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데, 양 원장을 비롯해 각 영역의 치과의사 스텝진, 전문 치과 위생사, 그리고 자체 기공실, 각종 최신 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서울 강북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정평이나 있다.

양 원장이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아픈 부위를 치료받고 갈 수 있도록 병원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다. 직원들 모두가 환자들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은 물론 정성을 다하는 진료상담과 치료에 임한 결과 환자들이 편히 찾고 인간적으로 친숙해지는 고객만족으로 이어졌고, 이 고객만족은 또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는 효과를 불러 왔다.

◇ 양유식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두 번째 비결은 관련분야의 최신장비를 다른 병원보다 우선 구비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

현재 양 치과는 약 1백 여평의 규모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최신 Unit Chair(진료대)를 10대 운영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실과 레이저 치료시설을 구비해 기존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잇몸질환도 절개 혹은 보정해 치료가 가능 하도록 최첨단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아울러, 왕십리 사거리에 「맨하탄 치과」라는 分院을 운영해 양 원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수용에 한계가 있는 환자들을 그 곳으로 보내서 진료하는 등 本院과 分院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도 한다.

양 원장은 지난 80년 이곳 신당동에서 개업을 시작한 이래 도로교통안전공단이 개설되자 공단 건물로 입주를 시작해 고객들을 계속 맞아들였는데 26년 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소지하고 있다.

그는 『평소에 적절한 치아관리가 꼭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구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이가 망가진 후에 병원을 찾기 때문에 틀니를 꼭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잇몸에 심어주는 임플란트 시술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양 원장은 밝혔다. 틀니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자기 이처럼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한다는 것.

그는 약 1천여회 이상의 시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강북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시술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보철 施術時에는 신경치료 전문의의 완벽한 신경치료후 우수한 재질을 이용해 전문적 치료를 수행하고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소개받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다고 한다.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인 치과학문 분야가 비중을 더해가고 있고, 우리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양원장은 『잇몸질환으로 병원을 찾기 이전에 철저한 관리가 선행된다면 평생을 건강한 치아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치과대학 Dick Neusma 박사로부터 보철 수련을 거쳐 치의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맨하탄 임플란트 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덴탈 서비스 인터내셔널 이사장을 역임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타쉬미 의과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치아보철과 최신 학문인 임플란트학 전공을 바탕으로 관련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진료안내 : ☎ 02-2234-2982/ 02-2235-2982)